

# ‘정율성 음악축제’ 중국서 처음 열린다

### ‘기념사업 협력 합의’ 4개 자치단체장 참석

### 17~18일 후난성서 ... 학술 포럼도 개최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1914~1976) 선생의 음악세계를 조명하기 위한 ‘정율성 음악축제’가 오는 17~18일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최근 기념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과 노희

용 광주 동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구종곤 전남 화순군수는 오는 17일 중국 후난성 창사시 후난대극장에서 열리는 정율성 음악축제에 참석한다.

정율성 축제는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들 단체장은 지난달 27일 동구와 남구 사이 벌어진 정 선생의 출생지 논란을

끝내고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 자치단체가 협력사업에 함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당시 합의에 따른 첫 결실인 셈이다.

광주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광주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핵심인 음악제에는 ‘평화의 비둘기’ ‘연안송’ 등 정 선생이 작곡한 노래들이 연주된다.

광주와 중국 공연단의 협연, 광주 MBC 정율성 합창대회 1위 팀인 순천 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의 공연도 무대에 오른다. 이튿날에는 후난대에서는 학술포럼도 열린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후난대 명예교수로 위촉되며 창사시민과 후난대학생 등을 상대로 ‘21세기 한중 청년의 공동비전’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도 한다.

윤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우수성과 장점을 교환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서는 이정식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을 좌장으로 ‘항일전사 정율성’을 주제로 논의하고 2부에서는 ‘정율성의 음악세계’를 조명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주의 전당 광주건설 합의 지켜라”

### 광주유치위, 19일 사업회·국회 방문 이행 촉구

한국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추진위원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해 ‘삼각축(서울-광주-마산) 전당 건립’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치위원들과 시 관계자들은 오는 19일 상경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치위는 기념사업회를 찾아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상황을 듣고 2013년 11월 서울·창원(마산)·광주를 삼각축으로 전당을 짓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애초 서울에 지을 계획이었으나, 광주

와 창원(마산)이 유치 경쟁을 펼쳤고, 두 도시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처할 합의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당시 합의와 달리 서울에만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위는 마산 유치위 관계자들과 동행하려 했으나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유치위는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해 서울 단독 건립을 전제로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예산 40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도음식에 쏠린 눈

지난 13일부터 3일간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열린 제22회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남 음식 명인 7명이 만든 음식들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지사 사절단 100여명, 수도권 거주 외국인 1700여명 등 국내외 인파가 몰려 성대하게 치러졌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장흥국제통합의학 학술대회 성료

### 한·중·일 의학발전 등 논의

### 내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의 통합의학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 보완대책의학 등을 주제로 한 ‘2015 장흥국제통합의학 학술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한국통합의학회와 장흥군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변광호 가톨릭의과대학장, 케빈 쉐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캐롤라인 크체츠크 독일 뮌헨대 교수, 우라데 요시히로 일본 쓰쿠바대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교수들이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13일 기조연설에 나선 변광호 가톨릭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왜 통합의학인가’를 주제로 세계적인 의료시장의 변화와 통합의학의 필요성 및 미래전망을 제시하고, 리우 지엔핑 중국 북경의과대학장

은 ‘근거 중심의학으로서의 중국 전통의학의 적용가능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케빈 쉐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 통합의학센터의 통합의학 교육, 연구, 임상 현황’, 캐롤라인 크체츠크 독일 뮌헨대 교수는 ‘독일에서의 동종요법’, 우라데 요시히로 일본 쓰쿠바대학교 교수는 ‘수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제 개발’ 등을 주제를 다뤘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개최사에서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시키고 생물의약 집적단지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장흥 안양면 로하스타운 일원에서 개최된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대구 이어 전남-경북도 ‘예산 동맹’

### 동해안·남해안 철도, 화순·안동 백신산업 협력키로

광주와 대구의 ‘예산 동맹’에 이어 전남과 경북도 역시 동해안철도와 남해안철도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지난 13일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막된 제22회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과 경북 포항~강원 삼척 간 동해안철도 중부구간 건설사업 예산을 증액

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국비 지원 규모가 적거나 제 때 지원이 안 돼 장기화되고 있는 각 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해 정부부처에 국비 협조를 상호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총 7개 공구 가운데 탄기공사 구간 2개 공구공사를 2003년부터 추진하다 정부가 경제성이 부

족하다는 이유로 2007년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52억원을 확보해 탄기구간 공사를 8년 만에 재착수하고,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일 반공사 구간 5개 공구를 포함한 전 구간을 착공하게 됐다.

전체 사업비 1조4000억원으로,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에 비해 국비 지원 액수가 적어 5년 내에 공사

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화순과 경북 안동에 추진 중인 백신산업 세계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도 전남과 경북이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과 전남은 지난해부터 ▲영호남 지방유래 고도(古都) 전문문화 자원화 사업 ▲국토 끝섬(울릉군·신안군) 주민 간 교류 ▲생활체육 교류 ▲농특산물 장터 운영 ▲경북 도민의 숲, 전남 도민의 숲 등 박정희·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이름을 활용한 사업 등 모두 7개의 상생협력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올 전남 쌀 생산량 86만6000t

### 전국 생산량의 20% 달해

### 6년만에 최고치

올 전남의 쌀 생산량이 86만6000t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는 등 6년 만에 쌀 수확량이 최고치를 찍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쌀 생산량이 432만7000t으로 지난해(424만1000t)보다 8만6000t(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생산량은 492만t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 2010~2014년 사이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 생산량 평균치보다 9.1% 증가했다.

날씨가 익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일조량이 늘어 풍년이 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충남(82만8000t), 전북(70만1000t) 순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출수 수입쌀 입찰 판매량을 50% 줄일 계획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